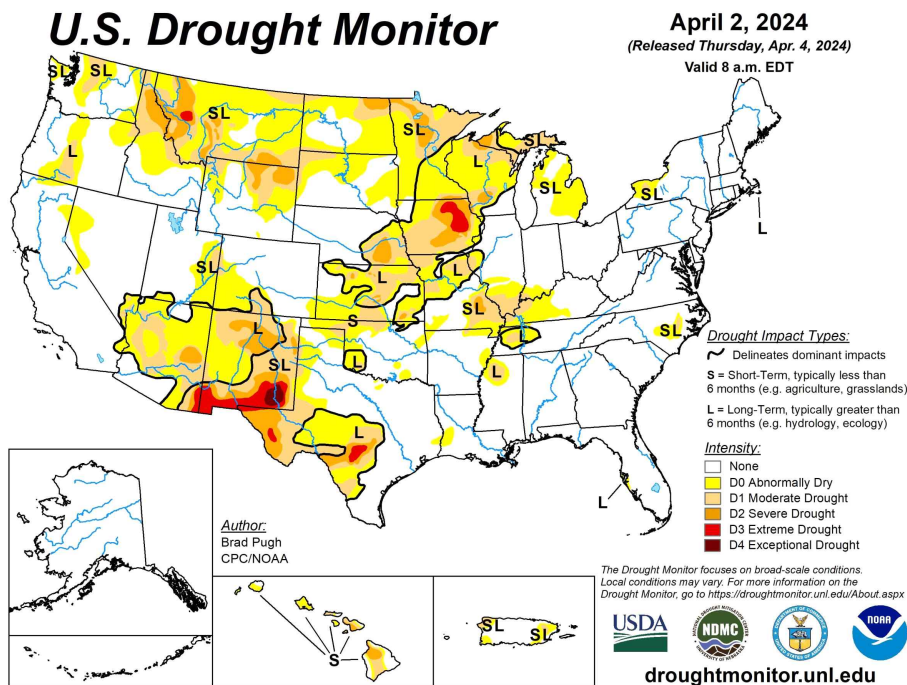


4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15)

□ 미국 기후 현황(3/31-4/6)

서부에서 느리게 움직이며 퍼져나가는 폭풍 전선이 나타나 중앙 평원을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그 저기압계는 미시간 호 근처에서 북대서양 연안으로 이동했다. 그 폭풍과 관련된 기상 위험 가운데는 4월초 남부, 동부 및 중서부 아래쪽 일부에서 발생한 악천후; 중서부에서 대서양 중부까지 내린 흠뻑 젖는 비; 뉴욕과 뉴잉글랜드 북쪽 구역에 내린 폭설 등이 있었다.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4월 1-3일에 발생한 악천후에는 일리노이, 인디애나 및 오하이오처럼 먼 북쪽까지 확대된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폭풍으로 인한 총 강우량이 미시시피 계곡 중류에서부터 중대서양 주들까지에 이르는 여러 곳들에서 2-4인치 이상에 달하여 파종 전 야외 작업이 지연되었고 작은 규모로 곳곳에 홍수가 발생했다. 대조적으로 남동부 지역에는 간헐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점점이 발생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원을 가로질러 며칠 동안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그러나 해당 주말에 서부 전역에 불안정한 날씨가 다시 찾아왔고 4월 6일에는 바람 부는 날씨와 소나기가 평원에 이르렀다. 그밖에 주 후반에 북부 평원 일부에 눈이 내렸고 다른 한편으로 남부 평원에는 강풍이 먼지를 일으켰다. 중앙 및 남캘리포니아, 대부분 남부 및 남서부 사막 지역의 일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 F 이상 낮았다. 대조적으로 고원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곳들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고 이외에도 평원 남쪽 절반에서부터 캐롤라이나까지의 전국 남동부 4분면 일부에서도 그러했다.



□ 농업 현황 요약(4/1-4/7)

4월 7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중서부, 북동부, 북부 로키산맥 그리고 남서부를 포함하는 넓은 부분에 그리고 이에 더하여 대평원, 남부 그리고 서부 일부에 평년 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강수량이 내렸다. 오하이오 계곡과 펜실베니아 일부는 해당 주간 4인치 이상의 비를 기록했다. 대분지, 옥수수 지대, 북동부 해안 그리고 남서부의 대부분은 4월 7일에 끝나는 해당 주간 평년보다 서늘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리고 뉴멕시코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대평원과 북부 로키산맥의 대부분과 그리고 이에 더하여 캐롤라이나, 오대호, 미시시피 계곡 하류, 뉴잉글랜드 그리고 오레곤은 평년보다 따뜻했다. 몬태나의 여러 곳들은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3/31-4/6)

■ 유럽:

이상적인 따뜻함이 유럽 대부분으로 강화되고 확장되었고 한편 서부 및 중부 재배 지역으로는 보통 수준의 비나 폭우가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이와 나란하게 남동부에서는 건조함이 그리고 가뭄이 발달하고 있었다. 서유럽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높았고 대륙의 동부 전체는 평년보다 5-9° C 높았다. 실제로 서부, 중부 및 남동부 재배 지역 전체에 걸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0도 후반 및 30도 초반까지 올라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별 및 월별 기록을 세웠다. 날씨가 지속적으로 평년보다 따뜻하여 서부와 남부 경작지 전체적으로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의 생식기 진입을 평년보다 2-4주 앞서게 했고 체코에서부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까지 겨울 유채는 이미 개화 중이다. 한편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북서부 및 스칸디나비아에는 보통 수준의 또는 강한 비 (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려서 토양이 적당한 또는 과도한 습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륙의 북동부 사분면에서는 다소 약했으나 여전히 유익한 소나기 (2-20 mm)가 기록되었다. 비가 발칸반도에서 그치고 넘어갔으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완전히 건조한 날씨가 국지적인 단기 가뭄을 악화시켰다; 헝가리 남동부의 헝가리 평야에서부터 세르비아 북부까지, 루마니아의 왈라키아 평원 서부, 불가리아 북동부 및 루마니아 남동부의 농경지에 심각한 수분결핍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퍼센트 미만)이 발달했다.

■ 구소련(서부):

매우 덥고 건조한 날씨가 겨울 작물의 발달과 계절 야외작업을 가속화하였고 북서부 재배 지역에는 비가 내렸으나 다른 곳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전 지역에 걸쳐서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5-9° C 높아서 겨울 작물의 성장을 가속화하였으나 중남부 재배 지역에서는 토양 수분 손실을 높였다. 토양 수분은 우크라이나 중부에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상당량의 비 (10 mm 이상)는 대체로 벨로루시와 주변 지역에 국한되었을 뿐이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서부에서는 급성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25 퍼센트 미만)가 지속되었으며 러시아의 남부 지방에 드문 드문 내린 소나기들 (2-20 mm)은 국지적으로 해소해주었을 뿐이었다. 영양기 겨울 밀, 보리 및 유채가 서부에서는 평년보다 2-3주 앞서서 그리고 러시아 남서부와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는 평년보다 1-2주 앞서 발달하고 있었다. 그런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봄 곡물과 여름작물의 파종이 거의 지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



■ 동아시아:

남중국 전역에서는 주초의 덥고 건조한 날씨가 더 서늘하고 습한 조건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초기에는 여름 같던 더위가 국지적으로 기온이 최고 40° C에 육박하면서 남중국을 휩쓸었다. 건조함이 동반한 그 더위는 개화하던 유채 (장강 계곡)와 영양기 조생벼 (남동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러나 주 중반에 어떤 패턴 변화가 일어나면서 폭우 (국지적으로 200 mm 를 넘어감)와 거의 평년에 가까운 기온이 작물의 초기 스트레스를 빠르게 완화시켰다. 더 북쪽으로 화북평야의 여러 구역들에서도, 양은 상당히 적었지만 (25 mm 미만), 강우가 기록되었다. 그래도 그 수분은 영양기를 거치고 있는 밀에게 반가웠다. 그 외에 서중국의 면화 생산자들은 더 따뜻한 날씨 (일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15° C 이상)를 기다리고 있었다.

■ 호주:

동호주에서는 광범위하면서 국지적으로 심하게 내린 소나기 (25-100 mm 이상) 때문에 성숙한 여름작물들을 말리는 속도는 더뎠고 많은 지역에서 수확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비가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와 함께 작용하면서 늦게 성숙하는 면화와 수수의 발달을 촉진했다. 주말까지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권 토양 수분이 평년 수준 이상이었기 때문에 밀과 기타 겨울 작물의 파종에 앞서서 토양 상태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밀 지대의 다른 곳 중에서 남호주와 서호주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하여 곧 이루어질 밀, 보리 및 캐놀라 파종에 앞서서 파종 전 야외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일주일 내내 기온의 변화 폭은 컸지만 호주 남부와 서부 지역의 대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 평년의 1° C 이 내였다.

■ 아르헨티나:

북동쪽 농업 지역에 다시 보통 내지 강한 수준의 소나기가 내려서 미성숙 여름작물들에 대한 늦철 수분 상승을 가져다주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에서부터 파라과이까지 총 10-100 mm의 강우량이 내렸고 이 비는 서쪽으로 살타와 코르도바의 북부 구역들까지 확장되었다. 대조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만연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 라팜파 그리고 코르도바 남부는 완전한 건조로 덮여졌다. 주간 기온은 다양했는데 엔트레리오스는 평년보다 2° C 낮았고 포모사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4° C 이상 높았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농업 지역의 섭씨 20도 후반과 30도 초반에서부터 먼 북쪽의 40° C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야간 최저 기온은 먼 남부 생산 지역에서는 5° C 아래로 떨어졌으나 결빙이 기록되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4월 4일 현재 92 퍼센트 수확되었는데 (작년은 72 퍼센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팜파에서 각각 89 및 95 퍼센트 수확이 완료되었다. 한편 옥수수는 14 퍼센트 수확되었는데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 (13 퍼센트) 이었다.

■ 브라질:

중앙 및 북동부 브라질의 주요 농업 지역들 전체에서 유익한 비가 계속되어 그 지역의 옥수수 수확과 면화에 대한 유리한 전망을 유지했다. 마투그로수, 고이아스 그리고 미나스제라이스 북부에서부터 마란하오까지의 내륙 농업 지역을 가로지른 넓은 지역에 걸쳐서 내린 총강수량은 25-100 mm였다. 여름철 더위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초중반에 도달)가 그 강우를 동반하면서 여름작물이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로 빠르게 발달하도록 촉진했다. 그러나 더 먼 남쪽은 두 번째 주에 들어서서 날씨가 계절과 달리 더 따뜻하고 더 건조하여 2기작 옥수수와 기타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감소시켰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부터 북쪽으로 마투그로수두술, 상파울루 및 미나스제라이스 남부를 지나기까지 내린 총 강수량은 25 mm 미만이었 고 많은 곳들에서는 5 mm 미만을 기록했다. 북부 농업 지역들에서처럼 여름 더위 (최고 기온이 30도 중반에 도달)가 그런 건조함을 동반했는데, 그 건조함과 더위의 영향이 생식기를 지나고 있는 작물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파라나에서 2기작 옥수수 작물의 거의 50 퍼센트가 개화기 내지 종실비대기였고 한편 1기작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94 및 93 퍼센트 수확되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4월 4일 현재 대두의 20 퍼센트가 수확되었고 이 작물의 다수 (51 퍼센트)가 성숙하고 있었다; 한편 옥수수는 76 퍼센트 수확되었다.